

손흥민, 70m 폭풍 드리블 '환상골'



토트넘의 손흥민이 8일 열린 EPL 16라운드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번리 수비진을 흔들며 환상골을 성공시킨 후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PL 번리전 1골 1도움... '킹 오브 더 매치' 선정

시즌 10호골... 4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 영국 언론도 '시즌 최고의 골' 칭찬 릴레이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의 또 다른 별명인 ‘슈퍼 소닉’에 걸맞은 화려한 질주 본능을 제대로 과시하면서 ‘인생골’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끝난 번리와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5-0 대승에 힘을 보탰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2골 1도움을 기록한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쌍끌이 활약에 루카스 모라와 무사 시소코의 득점까지 이어지면서 무려 5골을 쏟아냈다.

득점은 케인이 많았지만 손흥민의 득점은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였다.

손흥민은 자기 진영 페널티지역 부근에서 볼을 잡아 무시무시한 스피드로 질주를 막으려는 번리 선수 6명을 무력화한 뒤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손흥민이 질주한 거리만 70m를 훌쩍 넘는 ‘원더골’이었다.

손흥민은 지난해 11월 첼시를 상대로

중앙선 부근에서 속도를 끌어올려 50m를 질주한 뒤 득점포를 쏘으며 찬사를 받았다. 이로써 손흥민은 정규리그 5골 7도움을 기록했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5골 2도움) 기록까지 합치면 이번 시즌 10골 9도움의 공격포인트를 쌓았다.

시즌 10호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손흥민의 ‘원더골’에 찬사도 이어졌다.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의 ‘레전드’ 게리 리네커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와우! 손흥민이 역대 최고의 골 가운데 하나를 기록했다. 내 생각에는 이번 시즌 최고의 골이다”라고 칭찬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도 “손흥민은 이번 시즌 ‘최고의 골’의 진정한 도전자가 됐다”고 전했고, 더선도 “손흥민이 이번 시즌 최고의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질주하며 번리 선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로 선정하는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후 “10호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저의 임무다. 지금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득점 상황에 대해선 “운이 좋았다”고 웃음을 지었다.

손흥민은 “제가 잘해서 골을 넣은 것보다 운이 좋게도 공을 치는 대로 공간이 생겼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옆에 있던 델리 알리에게 패스하려고 속도를 늦췄는데 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됐다”라며 “그래서 치고 가다 보니까 제가 (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시도했는데 운이 좋았다. 사람들 없는 공간으로 볼이 갔고, 타이밍과 운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처음부터 볼을 잡고 돌파해서 골을 넣겠다고 생각은 한 적은 없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인생 최고의 득점’이라는 찬사에 대해선 “저에게는 모든 골이 소중하다. 세필드전 때 골절돼 들어간 골도 소중하다. 오늘 골도 소중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흥민(토트넘·가운데)이 8일 열린 번리와의 홈경기가 시작되기 전 박지성(왼쪽)으로부터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국제선수상' 트로피를 전달받은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손흥민, EPL 11월의 선수 후보

지난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맹활약한 손흥민(27·토트넘)이 ‘이달의 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지난 7일 EPL 사무국이 발표한 ‘이달의 선수’ 11월 후보 7명에 포함됐다.

손흥민은 지난달 EPL 4경기에서 총 2골 4도움을 기록했다. 11월 3일 에버턴과의 경기 1도움을 시작으로 매 경기 공격포인트를 쟁겼다.

/연합뉴스

23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조제 모리뉴 감독의 토트넘 사령탑 부임 첫 득점의 주인공이 되는 등 1골 1도움으로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손흥민이 수상에 성공하면 2016년 9월, 2017년 4월에 이어 통산 3번째 EPL 이달의 선수상을 받는다.

손흥민은 제이미 바디(레스터시티), 사디오 마네(리버풀), 소속팀 동료 델리 알리 등과 경쟁한다.

양현종 “KBO리그 잘 이끌겠다”

김광현과 일구대상 공동수상

한국프로야구를 이끄는 1988년생 등갑내기 에이스 김광현(SK 와이번스)과 양현종(KIA 타이거즈)이 일구대상 수상자로 나란히 선정됐다.

한국프로야구 OB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는 지난 6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9 나누리병원 일구상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일구대상 수상자로 김광현, 양현종을 발표했다.

김광현은 올해 17승 6패 평균자책점 2.51로 활약했다. 양현종은 16승 8패 평균자책점 2.29를 올렸다.

둘은 지난달에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의 ‘원투펀치’로 활약하며 준우승에 힘을 보탰다.

일구대상을 공동 수상한 양현종은 “올 시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해 기쁘다”며 “내년에 KBO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뿌듯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선수배들이 KBO리그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리미어12에서 대표팀의 에이스로 활약한 양현종은 “처음 대표팀 했을 때는 막내였는데, 이번 대표팀에서는 중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지난 6일 열린 '2019 나누리병원 일구상 시상식'에 공동 대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참 위치였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운동하고 시합을 치렀다”며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내년에도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만약 뽕하게 된다면 어린 선수들과 형들을 보필해서 올해보다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바벨 무제는 달라도 역도 열정은 하나”

전국 역도 동호인 연말대회 ‘역도 메카’ 보성서 열전 김용철 감독 열정·보성군 역도 인프라 시너지 효과

제22회 역도동호인 연말대회가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에서 200명의 역도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7-8일 보성군 다목적트레이닝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역도동호회가 주최하고 전남역도연맹·보성군역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남체육회와 보성군이 후원했다.

남녀 각각 청년부와 장년부로 나눠 진행됐고, 경기가 끝난 후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인기상, 다수출전상, 동반출전커플상, 베스트레스상으로 시상식도 열렸다.

대회는 제급별 계체부터 시작됐으며 대회 열기는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목표 기록을 향해 심호흡을 하며 집중력을 발휘했다.

자신의 신기록을 수립했을 때는 기쁨에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응원하는 참가자들도 성공과 실패에 따라 환호의 박수와 아쉬움의 탄식을 내뿜으며 함께 호흡했다.

역도는 해마다 수차례의 동호인 역도대회가 열릴 정도로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매년 12월 보성에서 열리는 대회는 100여명에 불과한 여느 지역의 대회보다 두배 가량 많은 참가자를 기록할 정도로 탄탄히 자리를 잡았다. 너무 많은 참가자들이 몰리면 대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부터 선착순 200명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보성 대회에 참가자들이 많은 이유는 보성군청 엘리트팀을 지도하며 생활체육으로서의 역도를 전파하는 김용철 감독의 영향은 물론이고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보성다목적트레이닝장의 인프라,



제22회 역도동호인 연말대회가 7-8일 이틀간 보성 다목적트레이닝장에서 개최됐다.

/보성군청 역도팀 제공

그리고 남도의 맛 때문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계체후 시합까지 시간이 생기거나 일찍 시합이 끝나면 인근 맛집 탐방이나 녹차밭 등 관광지 나들이에 나서곤 한다.

대회를 준비한 김용철 보성군청 역도팀 감독은 “전신운동인 역도는 건강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며 “참가자들이 대회를 즐

기고 보성에 대한 좋은 추억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이어 “올해는 남녀 경기를 교차 진행했고 자체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차별화를 뒀다”며 “앞으로도 일반인들이 역도를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이다연 ‘와이어투와이어’ 우승

KLPGA 시즌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 2위 이소미 3타차 따돌려

이다연(22)이 올해 해외에서 열린 대회에서 강세를 보이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20시즌 개막전 정상에 올랐다.

이다연은 8일 베트남 호찌민의 트윈도브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효성 챔피언십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우승했다.

이다연은 사흘 연속 선두를 달린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으로 상금 1억4천만 원을 받았다. 개인 통산으로는 다섯번째 우승이다.

특히 이다연은 지난 6월 한국여자골프 메이저대회인 한국여자오픈에서도 우승하는 등 최고의 2019년을 보냈다.

1타차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이다연은 경쟁자들이 단단한 그린을 공략하지 못하고 타수를 잃는 사이 전반에만 2타를 줄였다.

같은 챔피언 조에서 경기한 최은우(24)가 15번 홀(파5)에서 8m 거리의 버디퍼트를 넣어 이다연을 2타차로 압박했다. 하지만 이다연은 14번 홀(파3)에서 버디로 응수한 데 이어 최은우가 같은



KLPGA 2020시즌 개막전 우승자 이다연.

/KLPGA 제공

홀에서 보기를 적어냈다.

두 선수 간 격차는 순식간에 4타로 벌어져 우승의 기운은 이다연 쪽으로 기울었다. 최은우는 17번 홀(파3)에서도 한타를 잃어 2위 이소미(20·8언더파 208타)에 1타 뒤진 3위로 대회를 마쳤다.

2019시즌 6관왕 최혜선(20)은 합계 2언더파 214타로 공동 8위다.

/연합뉴스